

##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2010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두 학기를 교환학생으로 생활하고 온 윤국회라고 합니다. 제가 다녀온 대학교는 Sam Houston State University로 Huntsville, Texas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이 꽤 많습니다. 여권, 비자, I-20서류 발급부터 시작하여 전공 선정, 숙소 마련 등 고민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런 준비들은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것들이 아니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타국에서 유학생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것 저것 물어보았지만 명쾌한 답변을 듣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얻었고, 그 외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순천향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Sam Houston 학교 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답변은 그 학교의 분위기나 특징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아무리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도착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걱정되고, 궁금한 것 투성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는 말, 그게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비자나 여권 준비 등의 사항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므로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을 학기에 수강할 과목을 미리 신청하고 출국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같이 가는 친구와 같은 과목을 선택해 담당자에게 보냈지만, 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교수님의, 다른 시간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학기를 지내는 동안 한국인과 함께 들은 수업은 오직 그 한 과목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하던 전공과는 별개로, 평소에 흥미 있었던 분야 위주로 들었습니다. 그 곳에서 받아오는 성적은 한국으로 돌아오면 PASS 또는 FAIL로, 과목명은 나오지 않고 총 이수 받은 학점만 나옵니다. 때문에 학점 걱정 때문에 흥미 없는 쉬운 과목을 선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라는 것 때문에 겁을 먹고 어려울까 쉬울까를 생각하면서 고민했었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강의의 난이도를 좌우하는 것은 그것이 어려운 학문이나 아니냐가 아니라 교수님의 발음이 명확하여 알아듣기 편한가의 여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봄 학기에는 관심 있는 과목들을 확인해 두었다가, 첫 한주간 모두 참여해서 어떤 교수님이 나와 잘 맞는지를 체크해 수강신청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한 학기당 최소 학점은 12학점이므로, 무조건 그 이상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강의 교재는 학교 서점이나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을 최대한 빨리 마친 후 서점을 가보시면 중고로 책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하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공 책은 100불 이상입니다. 처음엔 모두 다 구입하여 엄청난 금액을 지출했었습니다만, 굳이 그럴 교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책이 있으면 강의만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따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요.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거나, 강의 후 직접 여쭙봐도 되고요. 모든 교수님들이 아주 친절히 설명 해주시니, 걱정 마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

꼭 필요한 교재들은 가져왔고, 나머지는 3/1 정도의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과제의 유형은 한국과 비슷합니다. 레포트를 쓰거나 앞에 나와 발표를 하거나 혹은 팀 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과목마다 상이하니 SYLLABUS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한국보다 많습니다. 매 시간 쪽지시험을 보는 과목도 있었고, 한 과목당 기말을 제외하고 네 다섯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외인 과목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말 포함 여섯 번 정도 시험을 치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말은 보통 전 범위가 해당되고, 기말 전 시간에는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주시기도 합니다. 과목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시험은 객관식이며, 시험 답안지는 개인이 서점 등에서 구매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는 한국 교환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지냈습니다. 방이 세 개 있고, 화장실은 각 방마다 있으며 거실과 부엌, 베란다를 공유하는 형태였습니다. 각자 화장실을 따로 가지고 있느냐, 공유하느냐로 매달 내는 렌트비에 차이가 많았습니다.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제가 살던 아파트의 경우, 방이 세 개에 개인 화장실이 있으면 \$469, 공유하면 \$379 였습니다. 개인 성향에 따라 달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렌트비가 저렴한 대신 가구없는 방도 있으므로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저는 급하게 집을 구하느라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만, 빨리 알아보시면 더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룸메이트를 만나냐에 따라 생활의 편함에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에게선 선택권이 없으므로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운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 보험을 들어서 갔지만, 이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 다시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확인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시면 캠퍼스 지도, 각종 가게의 홍보물, 학교 보험 설명문, 학생증 만드는 방법, 도서관 등 학교 내 건물 이용법 등 기본적인 부분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씨티은행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갔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일년 동안 사용할 돈을 넣어주셨고, 저는 매달 돈을 조금씩 뽑아 새로 만든 BANK OF AMERICA 계좌에 넣어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바로 BANK OF AMERICA 계좌로 돈을 넣어주셔도 되지만 자주 해외송금을 이용할 경우, 씨티카드에서 매달 인출할 때에 드는 수수료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부모님과 상의해 어느 카드로 송금해주실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은 I-20와 학생증, 주소와 연락처 등입니다. 또한 귀국 전 계좌를 닫고 오시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필요한 모든 생활용품들을 챙겨갔습니다. 삼푸, 비누, 칫솔, 이불 등 음식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져갔었습니다. 저처럼 다 가져가셔도 되지만, 그 곳에서 사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다 챙겨간 것 같아도 가면 또 필요한 것들이 이것저것 나오니까요. 옷은 한국에서 자주 입는 것들 위주로, 많이 챙겨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곳에 살던 친구가 텍사스 날씨는 매우 더워 그 곳의 겨울은 한국의 가을과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믿고, 긴 겉옷이라고는

후드 집업과 사파리 점퍼만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겨울이더군요. 대체적으로 그 곳에 사는 친구들이 추위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아무리 따뜻한 곳에 가신다 하더라도, 겨울 방학에는 추운 지역으로 여행을 갈 수가 있으므로 잘 챙겨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브랜드는 아무래도 한국보다 싼 편이고, 아울렛을 이용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므로 쇼핑 계획이 있으신 분은 적당히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학교가 시골에 있어서 그런지 패션에 신경 쓰는 친구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캠퍼스 안에서는요. 구두를 신고 다니는 여학생들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백팩을 애용하는 학생들도 많으니 옷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떠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영어가 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민이 많고, 힘들 때에는 외국인 친구와 그 고통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된다 해도 사고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또한 저는 한국인 친구와 어울리면서 그 친구의 외국인 친구를 만나는 방식으로 인맥을 넓혀나갔습니다. 혼자 일대일로 외국인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이미 한국인과 친분이 있는 외국인과 함께 편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과의 만남으로 정보도 빨리 얻고, '교환학생'으로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의논할 수 있었으며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 등에 함께 참여해 더 많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외로움을 이겨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한국인 친구와 외국인 친구 사이에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절대적으로 본인의 몫입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놀겠다고 외국인 친구와의 만남 횟수를 줄이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자주 만나 어울릴수록 영어 실력이 느는 것은 확실하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도록 노력해보십시오.

자신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혹시 말하면 틀리지는 않을까 머릿속으로 여러 번 생각하고 후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대화에서는 문법보다 '표정, 억양, 그리고 바디랭귀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머릿속의 영작 과정을 과감하게 건너 뛰고, 엉터리 영어라도 내뱉어 보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잘못 말한다고 해서 짜증내거나 무시하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국 전 최대한 많은 공부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환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데 있어 듣기, 말하기뿐 아니라 쓰고 읽는 능력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년 간의 교환학생. 최대한 즐겁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